

“우크라전, 완승 아닌 협상으로 끝날 것”

주요 유럽국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승리가 아닌 협상으로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는 유럽 15개국 정기 설문조사에서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전 방식을 묻는 말에 우크라이나 완승을 점치는 이들이 다수인 국가는 에스토니아밖에 없었다. 응답자 38%가 그렇게 생각했다. 다만 대다수 유럽국은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군사지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모두 되찾을 때까지 유럽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 그리스, 불가리아에서는 영토 완전탈환 수준으로 무기 지원을 늘리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이들이 다수였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

유럽 15개국 설문조사…자국민도 30%만 승리 점쳐
협상력 키우기 위한 지원 지지…병력 파견엔 반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자들. /EPA=연합뉴스

페인, 스위스 등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 영토 완전 수복을 위한 지속적 지원 ▲ 협상을 통한 종전 압박 ▲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의견이 각각 3분의 1 정도였다.

지원을 계속하는 게 옳다는 유럽 내 전반적 기류 속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상대적으로 가장 인색한 국가는 이탈리아였다.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는 방안을 향한 지지가 형성된 국가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설문도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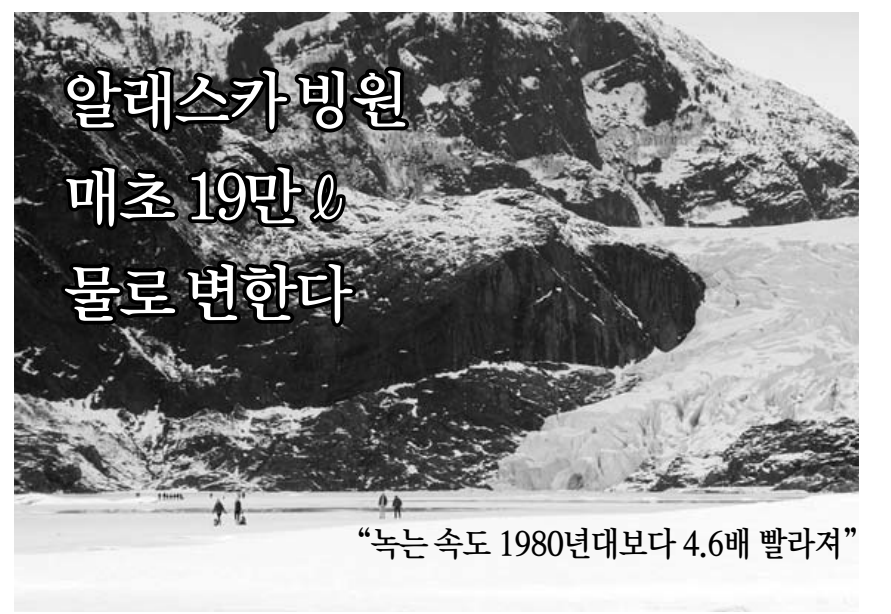
우크라이나인 58%는 자국 승리를 장담했고 30%는 전쟁이 협상으로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보는 이들은 1%에 그쳤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민 65%에게서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5월 전반기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5개국에서 1만9천5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보고서 공동저자인 이반 크라스테프는 “여론의 안정성이 주목된다”며 “전쟁은 유동적이지만 대중의 태도는 많은 면에서 동결상태”라고 추세를 분석했다.

다른 공동저자 마크 리오나드는 “전쟁을 끝내는 방식에 대한 유럽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상호 엇갈리는 입장을 타협시키는 게 세방 지도자들의 핵심 과제”라는 게 설문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알래스카빙원 매초 19만ℓ 물로 변한다

“녹는 속도 1980년대보다 4.6배 빨라져”

1천개 이상의 빙하로 돼 있는 알래스카 빙원의 녹는 속도가 1980년대보다 약 5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현지시간)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논문은 영국의 뉴캐슬대와 매사추세츠대 공동 연구팀은 3천850㎢에 달하는 알래스카 빙원을 18세기 데이터와 함께 198년부터 추적해 이같이 추론했다.

연구팀은 알래스카 빙원 크기가 1850년대부터 작아지기 시작해 약 10년 전부터 녹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최근에는 그 속도가 1980년대보다 4.6배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알래스카주 주도인 주노(Juneau)의 경우, 1948~2005년 4개의 빙하만이 녹았지만, 2005년과 2019년 사이에는 64개가

없어졌다고 논문은 밝혔다. 이 중 앤틀러(Antler)라고 하는 큰 빙하는 완전히 사라졌다.

연방 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알래스카 기온은 평균 섭씨 1.5도 올라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약 4배 더 빨리 따뜻해지고 있다고 논문은 전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매사추세츠 니콜스대 마우리 펠토 환경과학 교수는 “얼음이 물로 흘러드는 속도가 매초 약 5만 갤런(약 19만ℓ)에 이를 정도로 빙원이 빠르게 녹고 있다”고 말했다.

뉴캐슬대 빙하학자인 베탄 데이비스도 “기후가 변화하면서 (알래스카 주 노 지역)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이 녹고 더 길게 녹는 계절을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 종교행사 압사사고 116명 사망…대부분 여성·어린이

부상자 80명 넘어 사망자 늘듯
5천명 수용장소 1만5천명 집계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힌두교 행사 압사사고 사망자수가 최소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사고는 전날 우타르프라데시주 주도 리크나우에서 남서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하트라스 지역의 힌두교 행사장에서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서둘러 떠나던 도중 발생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경찰청장 프라산트 쿠마르는 AP에 이번 사고로 적어도 116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도 80명을 넘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텐트 안이 무덥고 습해 숨이 막혔던 일부 참가자가 행사 종료 후 빨리 나가려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목격자는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사고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힌두교 행사 압사사고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주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여있었고 출구가 없어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참사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행사 참가자가 1만5천여명으로, 주최 측이 허가받은 참가인원 5천여명의 3배에 달한 것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다면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한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

문에 집단 패닉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힌두교 설교자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전직 경찰관으로, 과거 20년 동안 이 같은 행사를 여러 번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최 측 과실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도에서는 종교행사와 관련한 압사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2013년에는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힌두교 축제를 위해 사원을 찾았던 순례자들이 다리 위에 서 있다가 붕괴된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앞다투어 벗어나다가 압사사고가 나 최소 115명이 숨졌다.

아이티서 30만명 난민 신세

전체 난민 58만명…유니세프 “성폭력·착취·학대 내몰려”

카리브해 최빈국 아이티가 강단 난동으로 무법천지가 되면서 4개월 만에 30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난민 신세가 됐다고 유엔이 지난 2일(현지시간) 집계했다.

캐서린 리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참사가 어린이들에게 파괴적 희생을 부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니세프는 지난 2월부터 기승을 부린 강단 난동으로 58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했다.

리셀 총재는 “떠도는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질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지원과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이 된 어린이들은 학교 등 임시

숙처에서 지내고 있으며,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질병 감염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 어린이는 성폭력, 착취, 학대 등에 내몰리고 있으며, 식량과 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강단에 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유엔은 앞서 강단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80% 이상을 장악했으며, 석달 만에 사망자 2천500명 이상이 나온 것으로 집계했다.

미주 최빈국으로 수십년간 빈곤과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온 아이티에서는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이 가중되면서 행정과 치안이 무너진 상황이다.

유엔 출신으로 신임 총리로 임명된 게리 코날이 이끄는 과도위원회는 지난달 새 내각을 꾸리고 국정 정상화에 나섰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우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